



## <녹 취 문>

|         |                                                |       |                  |
|---------|------------------------------------------------|-------|------------------|
| 과제명     |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br><‘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       |                  |
| 구술자     | (흥한방직) 노옥희                                     |       |                  |
| 면담자     | 곽은비                                            | 면담지원자 | 신동재              |
| 면담일시    | 2025. 9. 29.                                   | 면담장소  | 자택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
| 녹취문 작성자 | 곽은비                                            | 회차    | 1회차 (본인터뷰)       |

### 1. 시작멘트 : 구술자 개인신상 소개 (00:00:00 ~ 00:05:59)

노옥희: 사진도 없어. 다 없애버려서 그래.

곽은비: 근데 뭐 사진이 없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지금 흥한방직에 오래 다니신 분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 흥한방직  
다음에 지금 여기 동아풍림 자리에는 한일방직 잠깐 들어왔었잖아요.

노옥희: 네 잠깐 들어왔었지.

곽은비: 한일방직 다니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섭외가 되는데, 흥한방직 그 전이니까 이제

노옥희: 제일 먼저 흥한방직에는 이제 방죽 짜는 데, 거기에 기계 몇 대 있고. 나 오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스카웃 해 온 거야.

곽은비: 스카우트를

김노천: 영등포 한일방직에서.

노옥희: 영등포에서.

김노천: 그 저기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일방직이 다니던 18살 때. 1955년에  
흥한방직으로 오셨어.

곽은비: 음 그러면 일단 선생님 저희가 계속 어머니라고만 들어서 사실 성함도 잘 몰랐어



가지고 선생님 혹시 성함 여쭙볼 수 있을까요?

노옥희: 나? 노옥희

곽은비: 네 노 옥자 희자 선생님이시고, 혹시 그 태어나신 연도만 알 수 있을까요?

노옥희: 나 태어난지가.

김노천: 38년

노옥희: 응 38년생인데

김노천: 김포에서 태어났지 엄마?

곽은비: 그럼 김포에서 태어나신 거고

김노천: 바리미?

노옥희: 운양리

김노천: 운양리 병원에서 태어났겠네.

노옥희: 거기가 아주 노씨 가문네 본토배기(본토박이)다.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은 1938년 김포 운양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다가 그러면 처음에 영등포 한일방직 취직하시게 된 계기가

노옥희: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없는 게 많았어. 참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급단이라고 거기에 이제 끌려갔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돈을 주고 쌀을 한 마리 실려서 저기 지어서 보내는데, 사람을 사서 보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고집있어 가지고 그냥 가신 거야. 보급단을. 일단은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는 병을 병이 거기서 병을 얻었어. 그래 오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했었거든. 그 당시에는 뭐 시골에서 무슨 뭐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 갖고 시골에서 이제 사람을 사



가지고 인천을 이제 인천 병원으로 이제 한의원으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이제 나는 어려운 거야.  
아기. 이제 그때만 해도 한 열몇 살 때니까. 공부를 못했어.  
왜 못했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기울어졌는데 뭐.. 아주 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그래 가지고서는 나이가 이제 어린데 동네 여자들이 이제 처녀들이지. 이제 한 열  
대여섯 살, 7살 이렇게 먹은 처녀들이 이제 영등포로 방직회사로 취직을 하러 간대. 거기를  
이제 쫓아가서. 거기가 왜 쫓아가냐면은, 그 동네에서 시집을 간 양반이 우리 친구의 고모야  
거기가. 고모네인데 그 고모부가 거기에 그 방직회사 애를 계셔들렸어. 그래 갖고는 거기를  
이제 취직들을 한 거지.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천에서 스카웃하러  
왔다고 그리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안 오고 나 혼자 이제 따라 나선 거야. 인천을. 알지도  
못한 인천을. 그래 인천 와가지고서는 이제 왔는데. 제일 첫 때는 이제 잘 자리, 잠은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일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기숙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인천으로 내려온 거지.

곽은비: 그러면 혹시 영등포 한일방직 취직하셨던 거는 몇 년도쯤이세요? 몇 살 때세요? 처음  
일하신 거.

노옥희: 그때는 거기에는 오래 안 있었어. 오래 안 있었고. 하여간 거기서 오면서 여기 바로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고 맘 때 쯤 일거야. 아마

곽은비: 그러면

김노천: 55년도에 일로 오셨대요. 흥한방직으로. 나이가 17세 때 17세 18세 때.

곽은비: 그러면 딱 17세, 18세 때 원래 거기 잠깐. 영등포 갔다가 거의 바로 학익동  
흥한방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일, 영등포 한일방직이 방직이에요? 아니면 방적이에요?  
혹시

노옥희: 혹시 방직인지 방적인지 그걸 기억을 못하지

곽은비: 그거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좀 더 찾아볼게요. 방적인지 여기서는  
흥한방적이었잖아요. 원래 그 실 뽑는. 그래서 거기도 실을 뽑은 곳인지 아니면 방직을 하던  
곳인지 조금 궁금해서 커요. 한번 여쭙봤었고



노옥희: 거기는 커요. 회사가 크다고

## 2. 인천으로 오게 된 계기와 흥한방적 입사 첫 생활 (00:06:00~00:12:57)

곽은비: 그러면 여기가 55년에 잠시만요. 흥방 오셨고, 그럼 그때 처음에 55년에 흥방오셨을 때는 기숙사에 바로 거주를 하셨었던 거예요?

노옥희: 네, 기숙사

곽은비: 그럼 기숙사는 흥방 안에 있었을까요?

노옥희: 아니에요

곽은비: 어디 있었어요? 기숙사가

노옥희: 기숙사가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양자락에 부대가 있었어. 미군 부대가 이 자락에 있었고 또 이쪽에는 미군 부대 있고 한국 부대가 있었고. 저 회사 앞에는. 그래서 그 이제 부대 앞에서 이제

곽은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노옥희: 큰 길로 가야 돼. 그래갖고 올라와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야 돼.

곽은비: 혹시 지금 어느 쪽이었었어요? 대략

노옥희: 지금이 어느 쪽이 되냐 하면은

김노천: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이 자리에 뒤쪽으로 방직 공장이고. 앞쪽으로 군부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곽은비: 그러니까 앞쪽이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데가 원래

김노천: 건물 여기 여기



노옥희: 여기 기숙사가 요 자락에

김노천: 내가 표현한데?

노옥희: 이 자락일거야. 아마 기숙사가

김노천: 길 건너편?

노옥희: 근데 거기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였을 때는 거기가 기숙사였는데 기숙사를 이제 이렇게 크진 않아요.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방 하나에 3교대니까

곽은비: 그럼 방 하나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노옥희: 한 방에 그러니까. 한 교대에서 두 명도 있었고, 3명도 있었고 그랬어. 그게 거기서 이제 자고 잠만 자고 이제 밥을 먹으러 회사로 내려가야 돼.

곽은비: 그럼 기숙사가 지금 딱 그 국민주택 있던 쪽들.

노옥희: 어, 떨어져 있었지.

곽은비: 국민 주택 있던 저쪽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그쪽 라인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옥희: 공사하는 자락이 아니고

곽은비: 학익2동 동사무소 쪽?

노옥희: 우리 요 사거리

곽은비: 네 삼거리였던

김노천: 시장이 있고 시장있는데.



노옥희: 우체국. 부흥식당 있죠? 저 부흥식당이라.

곽은비: 부영약국

노옥희: 응 약국. 부영약국 있는 데가 그거 못 미쳐가 아마 기숙사였어. 그 당시에

곽은비: 그럼 기숙사가 1층 건물?

노옥희: 1층. 1층인데 건물이 다 헐어졌었잖아. 그때 건물이 완전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이 그냥 허술하게 생긴 게

김노천: 간이 건물처럼 살았다고. 단층이고.

노옥희: 어 단층에 있었어

곽은비: 혹시 그쪽에, 원래 옛날에 흥한방직 전에 일본 기업이었을 때, 그 일본 간부들 사택 이렇게 줄사택이 거기 이쪽에 있었던데 그건

노옥희: 그건 모르지, 내가 오기 전이니까

김노천: 내가 알기로는 그거를 아마 쓴 거 같아.

곽은비: 그렇죠. 그게 원래 흥방거였어 가지고

김노천: 같이 그래서 아마. 그거 부지를 같이 아마 활용했던 것 같아요.

곽은비: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55년에 흥방에 입사하시면서, 학익동에 처음 오시게 되셨고 처음 그때 기숙사 오시고 했을 때 기억나시는 학익동 풍경은 좀 어떠셨었어요?

노옥희: 풍경은 뭐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고 어디 나갈 줄은 몰랐어. 그냥. 기숙사에 가서 자고, 또 회사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일하러 들어가고 그거지. 어디 나갈 줄 모르고 이제 쉬는 날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과하고 놀러 다녔지



김노천: 17살 때니까. 17살 때라고 그때 다녔을 때가

곽은비: 그러면 흥한방직에 그렇게 몇 년도까지 다니셨을까요? 55년도에

노옥희: 오래는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길 다니면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더랬어. 그 전에 그 이제 열병이라고 그 병이 걸려가지고. 한약을 썼는데 한의원 데려다가 한약을 지어다 먹었는데,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냥 하혈을 해서. 그전에 도립병원이 이 회사의 지정 병원이야.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한 달 만에 고쳐갖고 나왔어. 내가

김노천: 어머니가 55년도에 입사하셔 가지고 몇 년도까지 근무하신 거야

곽은비: 몇 년 정도 일하신 걸까요?

노옥희: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나와 가지고 집에. 시골 가서는 이제 몸조리 한 달 동안 하고는 이제 다시 또 올라왔지. 회사로.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회사에 뭐 그 당시에는 얼마 못 다녔어요. 몸이 아프니까

곽은비: 그래도 한 2년 다니셨어요? 2년.

노옥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또 다닌 거지

곽은비: 그러면 한 2~3년 정도 다니셨다고 보면 될까요? 2년

노옥희: 한 그 정도는

김노천: 엄마는 61년도에 아버지를 만났거든. 그때 흥한방직을 다녔어 안다녔어?

노옥희: (남편을) 26살 때 만났냐? 내가

김노천: 26살 때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한 흥한방직을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노옥희: 다녔었지



김노천: 그럼 61년도도 다녔네. 61년도에도 다녔어 그러면

노옥희: 다니다가 이제 그만 둔거지.

김노천: 다니다가 아버지 만나서 그만둔 거 아니야 61년도까지

노옥희: 결혼한 거지

곽은비: 그러면 꽤 오래되네요. 55년부터. 근데 중간중간에 아프셔서 쉬셨던 날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한 그런 거 제외해도 한 5년 정도는 일을 하셨을 것 같네요.

김노천: 55년부터 61년도까지는 확실히 다니신 거니까. 옛날 분들은 10년 20년 전에 다닌다고 그러지

노옥희: 아고 다 잊어버렸어.

곽은비: 그럼 이때 일하실 때는 월급을 혹시 그 일급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월급으로 받으셨었어요?

노옥희: 월급으로 받았지

곽은비: 월급으로 혹시 첫 월급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실까요?

노옥희: 그거는 생각이 안 나 그거

곽은비: 월급제였고.

노옥희: 내가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장이 있고, 조장은 이제 이 줄이 석 줄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부조장으로 해가지고, 두 줄. 그래 갖고서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 3. 흥한방적 업무 및 근무 체계 (00:12:58~00:21:49)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과라고 해야 될까요? 방적과였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노옥희: 그것도 조방인가

곽은비: 조방과가 정확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그 안에서

노옥희: 이제 이 솜을 갖다가 굵은 솜을 갖다가 이 통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나와 기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제 또 조금 가늘게 이제 실을 뽑아. 그거 그 통을. 실 솜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우리 과에서 뽑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굵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뭐야 실, 가는 실 뽑는데 그리로 이제 보내는 거야.

곽은비: 그러면 조방과는 굵은 솜이 오면 그거를 조금 중간 실로.

노옥희: 그렇지

곽은비: 한 번 뽑고, 더 얇은 실로 뽑는 대로 보내는 곳을. 그럼 그 업무를 계속하셨던 거죠. 과가 바뀌신 거는 아니고 업무는 계속

노옥희: 이제 과가. 이제 그게 다르지 다. 과가

곽은비: 근데 선생님은 계속 그 조방과에서만 근무를 계속 하셨고

노옥희: 그렇지. 나는 계속 거기서 했지

곽은비: 그러면 혹시 그 일하실 때 조방과는 인원이 어느 정도였어요?

노옥희: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곽은비: 한일방직 때는 여쭙보니까. 방적과 한 팀이 근무할 때, 기계 돌리는 분들 하면 한 5 6명이 한 조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노옥희: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많지 않았어.

곽은비: 그러면 그때 흥한방적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한 조가 그려졌는데, 공장 전체 정도 그냥 인원들이 대략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노옥희: 그건 모르지. 과가 여럿이니까

곽은비: 혹시 과가 어떤 몇 개나 있었는지

노옥희: 다 잊어버렸어요.

김노천: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이지만

곽은비: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더라도 일단 굵은 솜을 통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과 하나 있었고.

노옥희: 이제 큰 솜 뭉치를 갖다가 큰 기계에서 이제 그 솜을 말아. 기계 들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굵은 이만큼 굵은 솜을 갖다가 통이 이만한 통이야.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자꾸 칭칭이. 그러면 이제 하나가 차면 그걸 이제 우리 과에서 그 통이 오면은 이제 또 조금 가는 실 뽑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우리 과로 이제 오는 거지. 그 실이 조금 굵은 거야. 우리 과에서 이제 조금 굵은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뭉치해가지고는 거기에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리로 이제 다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갖다가 여자들

김노천: 그럼 거기서 뭐 해? 그곳에서 전달해 주는 건 그쪽에서 뭐 하는 거야

노옥희: 그쪽에선 이제 가는 실 뽑는 거지. 가는 실을 뽑으면 그 가는 실을 가지고 이제 짜는 데로 가는 거야.

김노천: 짜는 데도 있어? 옷을 만드는데도 있어?.

노옥희: 짜는 데는 이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김노천: 이 건물은 이 공장에 넣고

노옥희: 어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공장이 분리가 돼 버렸어. 이과는 다르게. 이제 그 짜는과는 또 달라. 판 데 한쪽으로 가서 있어.

김노천: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있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다고?

노옥희: 어 그 공장애가 있는데 이제 분리가 돼 있지

김노천: 그러면 옷을 만들었네. 그럼 옷을 만들었네. 거기서도

노옥희: 옷은 안 만들고 짜는 것만 했지.

곽은비: 천짜는 것만.

노옥희: 천만. 무명 광목만 짠 거지.

김노천: 천 만드는 데니까

곽은비: 그래도 그러네요. 무명천까지 그럼 진짜 전체적인 걸 다 했네요. 실을 뽑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노옥희: 솜에서부터 가는 굵은 실서부터 가는 실서부터 그 짜는 데까지 다 그거는 다 있는 거야. 그 공장 안에가.

곽은비: 그러면 과만 해도 진짜 한 네다섯 개는 그래도 이 됐겠네요.

노옥희: 내가 과는 다 기억을 못해 다 잊어버렸어. 오래돼서

곽은비: 이거는 제가 또 찾아보면 나올 거라.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드님 인터뷰할 때, 어머니가 뭐야 그 공장에서 부조장 반장 역할을 하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부조장 좀 전에 부조장 하셨었다고 했는데. 부조장은 하면 어떤 업무를 조금 더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옥희: 그러니까 이제 반장이 안 나오면은 내가 맡아갖고 또 지시를 하는 거지.

김노천: 업무 분장해주고

곽은비: 그러면 한 조가 그때 5명에서 6명, 그 선생님이 같이 하는 그

노옥희: 한 조가 그때 몇 명인지 모르겠다. 기계 한 대에 하나씩 양자락에 기계 두 대를  
가지고 양자락에서 일을 하니까. 한 3명, 2명, 2명, 한 4명? 기계가 6대니깐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는 될 것 같다.

곽은비: 기계가 6대면 3개 그만해 10명에서. 그렇게 3교대 되면. 진짜 30명 한 한 그 뭐야 한  
과당 그래도 30명씩은 규모가 거의 됐겠네요. 그러면 흥한방직

노옥희: 인원은 많죠

김노천: 30명의 3교대면, 90명이 되는 거죠.

노옥희: 과 과가 많으니까 인원은 많아. 근데 다른 과 인원을 내가 모르지.

곽은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흥한방직 아까 3교대라고 하셨었는데, 3교대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교대 몇 시부터 몇 시가 2교대

노옥희: 그러니까 24시간을 가지고 3교대를 뽑아봐.

김노천: 3x8에. 8시간씩 꺼야겠네요.

노옥희: 8시간 정도

김노천: 아침은 몇 시에 시작해? 9시? 아침 8시 일찍 했겠는데

노옥희: 시작하면은 한 8시 넘어서 아마 시작했을 거야. 그때 아침 먹고는 바로 일  
시작하니까, 교대하니까. 아침에 교대하고, 저녁에 교대하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교대하고.

곽은비: 그러면 야간 타임 야간에도 있었잖아요. 야간은 조금 더 붙었을까요? 수당이 야간 수당이 더 있었어요?

노옥희: 그건 모르지 뭐. 월급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월급만 타고 있었으니까

김노천: 대신 교대제니까 한번 그 3일마다 한 번씩 쉬겠네. 3교대에서 3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야?

노옥희: 3일마다 한 번씩 주는 게 아니고 한 달로

김노천: 아니 아니 설 때. 쉬는 거 3교대인데, 이게 8시간씩 나누는 건지. 아니면 두 명은 두 조는 근무를 하고 한 조는

노옥희: 한 조는 일하고, 두 조는 쉬고. 또 한 조 일하고, 또 두 조는 쉬고. 그러지 3교대로

신동재: 한 번에 일할 때 몇 시간씩 그러면

김노천: 8시간

노옥희: 한 8시간 3교대로 해

김노천: 그러면은 하루, 하루 웬종일 세 팀이 계속 도는 거네. 그냥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노옥희: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지. 사람만 바뀌지.

김노천: 일요일 안 쉬는 거고 일요일 안 쉬고

노옥희: 사람만 바뀌지.

신동재: 어머니는 오전 오후 밤 중에 언제 주로 일하셨어요?



노옥희: 그러니까 그냥 3교대니까, 뭐 이제. 두 교대 한 사람, 한 팀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두 팀 일하는 시간에 쉬는 거야. 집에 나와서 이제

신동재: 그럼 어머니는 어떨 때는 뭐 밤에 가서 일하고 어떨 때는 낮에 가서 일하고 들어 하셨던 거예요?

노옥희: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또 저녁에도 가고 우리 3교대니까

#### 4. 흥한방적 근무 환경 (00:21:50~00:28:55)

곽은비: 그러면 그때 일하셨을 때, 방직하는 데가 그 실이 계속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돼서 엄청 덥고 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일하실 때는 혹시 어떠셨어요? 그렇게 안개가 되게 습한 환경이었어요?

노옥희: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제 굵은 실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여간 굵어, 솜이 떡갈래 있잖아. 떡갈래같이 이렇게 굵어. 그런 솜이 이런 통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차곡차곡 기계로.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 솜 트는 기계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넘어오면은 우리 거기 우리 조에서는 이제 또 이만큼 굵은 실을 뽑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가는 실을 또 뽑아.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아주 가는 실 뽑는 데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곽은비: 그러면 그 아내가 그렇게 막 덥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공장이지?

노옥희: 덥지. 더워

김노천: 선풍기는 있었고?

노옥희: 순 그냥 저기니까. 전기니까 전기로 하는 거니까 더 없지.

김노천: 선풍기는 있었어?

노옥희: 선풍기는 없고. 그때 뭘 놓고 썼는지 모르겠어.



곽은비: 그래서 막 겨울에도 다들 반팔 입고 일할 정도로 공장이 더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노옥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반팔 입고 일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곽은비: 공장 안에 먼지가 많진 않았어요?

노옥희: 먼지가 많지. 순 솜이니까. 솜이고 실 가는 실 뽑는 것도 그것도 다 솜에서 뽑아 나오는 거니까, 다 먼지야 그냥.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하얘. 먼지가. 하얀 먼지가 그렇게 마스크 몸매가 그냥 마스크도 없어. 그때는.

김노천: 마스크 안 하고 했어?

노옥희: 그럼 그냥 했지

곽은비: 그러면 막 뭐야, 이렇게 계속 먼지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원래는 결핵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각혈도 많이 했다고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기관지 때문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없으셨을까요? 그때?

노옥희: 근데 우리 과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김노천: 엄마도 아팠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원인이

노옥희: 그렇지도 않아

곽은비: 그러면 식사 제공은 어떻게 됐었어요? 식사. 급식 같은 게 있었어요? 점심이나

노옥희: 급식이 없었고, 이제 아침에 들어가면 밥 먹고 아침. 또 이제 점심 나와서 먹고. 일하다가 점심 시간 되면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아주 먹고 나와. 그리고 기숙사로 들어가

곽은비: 그럼 회사에서



노옥희: 회사에서 먹는 거

곽은비: 회사에서 밥이 나온 거예요?

노옥희: 어어, 거기에 이제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줌마들이 이제 밥을 해. 거기서

곽은비: 따로 뭐 간식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노옥희: 그런 건 없어요.

곽은비: 그럼 그냥 밥만

노옥희: 하루 3(세끼)때 이제 식사. 식사만 이제 책임지지.

곽은비: 그러면 기숙. 대부분 여자분들이 여직공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노옥희: 많지

곽은비: 회사에 남자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노옥희: 일도 많고. 남자들은 대부분 힘든 거. 힘든 거. 기계. 그런 걸 많이 하고. 이제 기계 고장 나면 그런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야 이제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자들이 많지. 통근차가 있어요. 시내에 나가는 통근차가 있어 갖고. 퇴근 시간이면 차가 대기하고 있어. 그 이제 이 동인천까지 데려다 주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들 가는 거지.

곽은비: 그러면 중간에 내려주는 곳은 없고, 학익동부터 동인천까지만 왔다 갔다 했던 버스예요?

노옥희: 응 왔다갔다.

곽은비: 그 버스는 아예 회사 버스?

노옥희: 회사 버스. 그리고 우리도 시내, 이제 동인천 같은 데 가려면은 퇴근하고 그 버스





타고 가. 그래갖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이제 또 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그 차를 타고 와 또. 그전에 버스가 없었어. 여기. 버스도 없고 그 무슨 택시아 그 택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땡기는

곽은비: 시발 택시 그런

노옥희: 응 그 택시들을. 우리 같은 사람은 탈 수가 없지. 그런 월급 생활 하면서 택시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회사 차를 많이 이용하지.

김노천: 그런데 이제 버스는 별로 하니까

곽은비: 진짜 약간 여성분들, 여자 직공분들이 일하시기에는 그래도 흥한방적이 기숙사 있고. 밥도.. 그럼 밥은 따로 월급에서 제외됐던 거예요? 아니면 복지처럼 어느 정도

노옥희: 그거 아마 회사에서, 회사에서 해줬을 거야. 식대를 따로 댔 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곽은비: 진짜 그러고 통근으로 동인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노는 금액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돈이 엄청 들고 하지는 않았었겠네요. 일하시면서

노옥희: 그 당시에는 돈들이 귀했잖아.

곽은비: 그렇죠

김노천: 근데 이 동네에는 지금 밥 먹고 놀 만한 거 없었어? 회사 근처에는? 근처 회사 근처에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놀고

노옥희: 시장에 학익시장. 지금 죽어 있는 학익시장. 그 시장 하나 있더랬어. 시장이 그거 하나 있었는데

김노천: 시장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노옥희: 이제 술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었어. 이 주위에가. 주위에가 그런 거 있었고. 그



부영약국이 약국 자리가, 그전부터 그 아주머니가 통장을 봤는지 하여간 반장을 봤는지 그랬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술집이 있었고. 그걸 지금은 어디 어디가 어딘지 그걸 짐작을 못해.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매를 낳고,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용현동으로 학익.. 용현동으로 이사를 간 거지. 응 용현동으로 이사 갔다가 50년 만에 여기 온 거야. 이 아파트를

## 5. 인천 내 살았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 (00:28:56~00:35:11)

곽은비: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55년부터 61년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계속하셨던 거고. 결혼을 그러면 결혼을 61년도에 하신 거예요.

노옥희: 바로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

곽은비: 61년에 결혼

김노천: 63년도에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여기 나와 63년도에 결혼했대. 61년도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게 61년도

노옥희: 너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바로 안 하고 1년인가 2년인가 이따가 아마 결혼 했을 거야.

김노천: 63년에 결혼할 때까지는 방직 공장 다녔어?

노옥희: 그만뒀지 그때는

김노천: 아니 그니까 그럼 바로 그만두고 결혼한 거야? 아니면은

노옥희: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지.

김노천: 63년도까지 다닌거야?

곽은비: 꽤 오래 다니셨네. 그러면



노옥희: 노무과장님이 주례를 서졌으니까.

김노천: 그럼 63년도까지 다닌 거네.

곽은비: 그럼 8년 정도.

노옥희: 하여간 너희 아버지 만나고서도 회사에 다녔으니까,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만둔 거지.

곽은비: 그러면 63년에 결혼하시고선 처음에 사셨던 곳은 어디셨어요? 신혼집

노옥희: 처음에 살았던 집이 지금 헐렸어요. 다 그 소년형무소, 그 건너편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바로 행길 도로 옆이야.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 집도 없어지고 아마 그 도로가 크게 나고 그 가게들이 생겼을거야.

김노천: 그럼 내가 태어난 데랑 위치가 틀리네. 내가 태어난 곳하곤 틀려 엄마 살던 데랑

노옥희: 뭐 틀려

김노천: 내가 태어난 데 거기라며 도서관 밑에. 거기 버스 정류장인데 그 건물이라며

노옥희: 거기 저기 저 뭐야, 소년형무소 맞은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앞에

김노천: 학나래 도서관 입구.

노옥희: 그 앞에 그 집에서 너를 낳았으니까 너희들 둘 다

김노천: 그 근처에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고 .그 길이 그 뒤에서

곽은비: 작가님이 몇 년생이세요?

김노천: 66년생



노옥희: 남매를 다 연년생으로 낳았어.

김노천: 나를 낳기 전에, 먼저 신혼집을. 신혼집에서 나를 낳은 거야? 아니면 딴 데 살았잖아  
옛날에 여러 사람 가족들이 산 데서 살았잖아.

노옥희: 신혼집이 아니고. 그게 그리로 그 집을 그전에 할머니가 그걸 소 팔아서 전세로  
얻어준 집이야. 거기서 너를 낳았지

김노천: 그러면 그 집에서 처음 신혼집이고, 나까지 낳을 때는 나오고 그럼 거기서 산 거네  
그 어딘지 알겠어

노옥희: 그 집에서 난 거지

김노천: 그거 해서 처음부터 신혼 살림을 했네요. 그러면

노옥희: 63년부터 누나도 거기서 나고

곽은비: 그럼 그러고 나서 거기 소년형무소 사시다가 다음으로는 어디 이사 가셨던 거예요?

노옥희: 거기서 살다가 이제 다음은

김노천: 용현동이야?

노옥희: 용현동으로 이사 갔지

김노천: 토지 저기 사택 입구

곽은비: 아, 용현동 사택 입구.

김노천: 지금 용마루 지구.

곽은비: 용마루 지구. 네네 그러면 여기 사택 입구 쪽으로 이사 가셨던 게 몇 년쯤이예요?  
용현동으로 이사 가신 게



노옥희: 하여간 그때가 아들이 4살 때냐, 몇 살 때냐, 세살 때냐 몇 살 때냐

김노천: 71년도인가 70년도가 갔던 것 같아요.

노옥희: 그때 사택 입구로 갔지. 봤지 그 일본 사택이야.

곽은비: 일본 사택에서 사셨구나, 아마 영단주택일 것 같은데.

노옥희: 일본사택도, 그게 이제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이건 제일 하치 사택 집이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로 간 거지 싸니까

곽은비: 다다미 방 있고.

노옥희: 옛날, 옛날에 다다미방은 아니야. 그래도 구들 논 방이지, 방 2개에 부엌 하나. 또 마루라고 요만한 거 찬장 하나 들여놓을 정도 그 정도고. 그거고 뒤에 이제 나무 쌓는 거 뒤에 나무 쌓는 광에 붙은 약간 마당 마당이 있었고

곽은비: 그러면 거기 거기서 계속 사시다가

노옥희: 거기서 그래도 한참 살았지 한참 살다가 이제

김노천: 아니야 10년도 안 살고, 내가 초등학교 때 송의동으로 이사 간 거잖아.

노옥희: 거기서 살다가

김노천: 내 초등학교 때 송의동으로 갔어.

곽은비: 송의동 가신 게 몇 년 도쯤이에요?

김노천: 그러니까는

노옥희: 사택집을 삼촌 삼촌한테 주고 산 집을 내가 들어온거지



김노천: 78년도? 77년도에 이사 갔지 그거 바로 위예요. 바로 윗 동네 송의동이 경계선 지역인데

곽은비: 그렇죠, 거기 로터리 있는 쪽. 남부역있는..

김노천: 그거 좀 못 가서. 용현2동 붙어 있는데

곽은비: 아, 그쪽 송의동

노옥희: 송의동, 이제 용현동 이 경계선이야.

곽은비: 그럼 거기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김노천: 거기서 이제 오래 산거야 송의동에서.

노옥희: 거기서 한 50년 살았어.

곽은비: 그리고 여기 오신 거예요?

김노천: 50년은 너무 있고, 한 40년

노옥희: 거기 다 아파트 들어왔잖아.

곽은비: 여기 오신 거는 언제예요?

노옥희: 지금 여기 온 지도 10년이 넘었지?

김노천: 용마루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왔으니까, 10년 정도 그렇지

노옥희: 10년이 넘었지. 아마 여기 온 지도

곽은비: 그때 오신 거구나. 그래서 진짜 약간 미추홀구 일대에서 멀리 안 나가지고 이



일대에서 계속 계셨었구나.

노옥희: 용현동 가서, 용현동 가서 이제 거기가 용현동 겸 또 송의2동 겸 이렇게 경계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송의2동으로 돼 있고.

김노천: 송의1동

노옥희: 송의1동, 송의1동으로 돼 있고 저기

김노천: 동네는 용현2동이고.

노옥희: 동네에서 용현2동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송의1동으로 바뀌어지더라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는 그 집 헐리는 바람에 이제 이 학익동으로 또 온 거지. 50년 만에 왔어. 내가  
따져보니까 50년 40년 50년 만에 그럼

곽은비: 작가님은 용현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김노천: 네

## 6. 흥한방적 근무 이야기 (00:35:12~00:47:58)

곽은비: 그러면 흥한방적 다니실 때 여기 학익동 내에서 여기 방직 공장 다닌다고 하면 혹시  
이미지나 이야기들이 좀 어땠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옥희: 모르지 그거는. 나가질 않으니까 어딜 나가야 말이지

김노천: 그래도 인기 있지 않았어 그

곽은비: 돈을 꽤찮게 벌지 않았어요? 돈을 좀 꽤찮게 벌지 않았어요 흥한방적이 그래도?

김노천: 다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

노옥희: 그냥 뭐 그때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참 힘들었어. 직장 만나기가 힘들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참 힘들었어.



김노천: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지. 일이 없었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곽은비: 혹시 그러면 흥한방적에 많이 계셨던 지역 분들 있으세요? 그 한일방직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분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노옥희: 여기는 제주도 사람도 있었고, 전라도 사람도 있었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고

곽은비: 다 각지에서

노옥희: 또 저기 저 뭐야. 경상도 거기 사람도 있었고 그래

곽은비: 골고루 있었네요.

김노천: 그때부터 인천이

곽은비: 그러네요

노옥희: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숙사로 들어오잖아.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곽은비: 남자분들은 기숙사가 없었지. 남자 기숙사

노옥희: 남자는 기숙사 없었어. 여자들만 있었지.

곽은비: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사고 났던 적 없어요

노옥희: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거지.

김노천: 아니 무슨 화재 사고라든지 회사에서

곽은비: 사람이 누가 크게 다친다거나





노옥희: 그런건 없었어

곽은비: 그러면 주변에 별로 이렇게 놀거리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여기 부대 있고 했었어 가지고 좀 술집 이런 거는 좀 많지 않았었어요? 밤에? 나가실 일이 없으셨나?

노옥희: 술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양색시들이 많았지. 미군들이 있으니까 그게

김노천: 그게 술집이야.

노옥희: 양색시들이 많아서

신동재: 어머니 제가 예전에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방직공장이나 이런 데 갑자기 한 번씩 정전이 되면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나와서 놀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노옥희: 정전이 안 돼요. 발전기가 있어서

신동재: 안타깝네요.

노옥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동재: 이제 정전 때문에 나와서 막 다 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옥희: 그런 점은 있더라고.

신동재: 정전이 안 되는구나.

김노천: 그래도 여기 식당 같은 것도 있고, 방직공장 근처에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술집에도 있어 대포집 같은 거

노옥희: 그냥 조그만 조그만 집 그런 술집 같은 것도 이제 몇 개 있었고.

김노천: 여기에 또 주거지도 많았잖아. 일반인이 사는데 주거지도 여기있고 많은데



노옥희: 그리고 동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동네가 있었어. 근데 그 동네 이름을 내가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곽은비: 안쪽이 어디를 말씀하

김노천: 산 쪽으로?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노옥희: 저쪽 산자락으로

김노천: 문학산 쪽으로?

노옥희: 응

곽은비: 거기가 모리포 같은데

노옥희: 거기가 이 초가집들이지. 동네가 있었어. 친구들이 거기서 몇 살았는데, 그 동네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어. 다

곽은비: 그럼 친구분들이랑 놀러 나가실 때는 주로 동인천 가셨던 거예요. 어디 많이 놀러 나가셨어요?

노옥희: 그냥 놀러 가야 이제. 실컷 가는 건 이제 작약도. 작약도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요 주위에 이제 문학산 뭐야 저 문학산 같은 데 가고. 이제 과수원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놀다가 이제 오고 그래

곽은비: 작약도 가지는 배는 어디서 타고 가셨어요?

노옥희: 배가 있어요. 월미도에서 탔나? 월미도에서 탔나 보다.

곽은비: 그때면 월미도 아니면 북성포구에서 많이 탔었다는 말씀.

노옥희: 월미도



김노천: 북성포구는 어선만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도 여객선이 있었어요?

곽은비: 교동도 가는 배를 북성포구에서 많이 타셨대요. 왜냐하면 그 노선이 교동도가 워낙 머니까 하루에 막 8시간 걸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노옥희: 월미도에서 타면 이렇게 보여 작약도가 보여. 대부분 그거 타고 갔지.

곽은비::근데 여객선이라 해도 되게 작아서 엄청 배멀미가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주신 이 사진이 그래서 작약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천 스타 사이다 쓰여 있더라고요. 간판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노옥희: 이게 아마 그 작약도의 매점일 거야.

김노천: 하나밖에 없는 매점

노옥희: 매점일 거야. 이게

김노천: 나도 알아 그건

노옥희: 너도 알아?

김노천: 작약도에 매점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거 보고 '아 작약도구나'했지

노옥희: 이게 처음 놀러 간 거야. 인천 와갔고 인천 와갔고 친구들과 처음 놀러 간 거야. 이게. 여기 우리 팀 애들이여. 다 이거 다 팀 애들이라고

곽은비: 그러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팀이 진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되었었겠네요. 이렇게 보면

노옥희: 사진 몇 장 있는 것도 다 찢어버렸어. 내가. 그런 것도 못 들어 이거 어디 어디서 그래도 있더랬어.



김노천: 엄마 앨범에서 찾았지

노옥희: 내가 다 버렸는데

곽은비: 그럼 이거는 어디일까요? 바다 가서 이것도 작약도?

노옥희: 작약도

곽은비: 네, 이것도 작약도

노옥희: 기껏 가야 거기밖에 없어. 여기서 인천에서

곽은비: 작약도. 이건 문학산. 이거 혹시 선생님 이거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노옥희: 이것이 어딘지 모르겠네.

곽은비: 자유공원은 많이 안 놀러 가셨어요?

노옥희: 기억이 안 나

김노천: 자유공원 가진 적 있어?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노옥희: 공원에 들어갔다했어.

김노천: 제일 갈 만한 데가 자유공원이겠지 뭐

노옥희: 거기 거기밖에 없어.

곽은비: 만만한 곳들이 딱

노옥희: 자유공원하고 먼 데 가야 이제 작약도 배 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수원  
저기 저 석바위가 그 자리에 과수원이 있었어. 그게 거기 과수원에 가서 놀다가 이제 과일  
따서 먹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지. 어디 먼 데 갈 수도 없어. 또



곽은비: 그때 교통도 많이 발달 안 됐으니까

노옥희: 시간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곽은비: 기숙사에 좀 늦게 들어가면 뭔가 벌칙이 있었어요.

노옥희: 많았지. 그래도

곽은비: 벌점이라든가

노옥희: 사감 선생이 사람이 좋았어. 아주. 나이 좀 잡순 양반인데 저기 저 뭐야 어디냐.. 저 한 굴곡에 그 교회 큰 교회 있잖아. 그 무슨 전도관 거기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사람이 아주 좋았어. 그 양반이 기숙사 사감하고 있었지.

곽은비: 다른 데 기숙사는 몇 번 이상 지각하거나 하면 외출 하루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노옥희: 근데 여기는 말대로 잘 들어. 이 기숙사에는. 이제 아줌마도 있고 40대 된 아줌마도 있고, 30대 된 아줌마도 있고, 이제 먼 데서 저 제주도에서 그런 데서 온 아줌마들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나쁜 행동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시간에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딱 들어오고 그러지. 그렇게 말썽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

곽은비: 그러면 방직 흥한방직에 다니시는 여성 여자분들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없었죠. 그냥 보통 다 잠깐잠깐 일하고 관두시는 게 많던데

노옥희: 응 조금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조금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곽은비: 결혼하면 또 관두고 하니까

노옥희: 그만두고 또 이제 안양도 방적회사가 큰 거 있었거든<sup>1)</sup>.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로

---

1) 아마도 1948년 설립되어 1949년 안양에 공장을 준공한 금성방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음. 금성방직은 합병을 거쳐 현재는 '대농그룹'으로 흡수됐다.



들어가려고.

김노천: 안양 쪽에?

노옥희: 어 안양에 나도 그리 가려고 그랬었는데.

김노천: 흥한방식이 원래 또 안양에 있지 않았나?

노옥희: 아니야. 그리 가려고 했었는데 결혼하는 바람에 안 갔지.

김노천: 그럼 거기로 가면은 급여를 더 주나? 돈을? 돈을 더 줘서 가나?

노옥희: 돈을 더 주지.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몇 년 있었으면, 몇 년 연도를 늘리거든 늘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이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옮기는 거야. 사람들이.

곽은비: 그리고 아드님 인터뷰 때 보니까 바로 옆 부대에 아버님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노옥희: 중매해가지고

곽은비: 아, 중매였어요? 제가 또 미팅 같은 게 있었나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김노천: 일대일 미팅이 중매지 뭐.

곽은비: 음, 아

김노천: 아 중매였어?

노옥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사는 집에, 그 아주머니가 중매를 썼어. 나를 그래갖고 중매했지

곽은비: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노옥희: 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한 집을 건너서 우리 친구가 살았거든. 난 개 친구네 집에 또 건넌방에 살았고. 그러니까 올적갈적 본 거야.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중매를 서 가지고서는 만나게 해줬지. 그래서 결혼하게 된거지.

곽은비: 흥한방적이 옛날에는 일본 공장이 일본 제마 공장이었다가 이렇게 흥한방적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노옥희: 글썄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몰라 나 왔을 때는 흥한방직이라고 한 대로 그냥

김노천: 그 뒤에 중간에 미군이 거기 기지를 썼죠. 방직공장이 없었어. 그때는

노옥희: 이게 흥한방직이면은 미군 부대가 여기 있었고 이게 도로야 흥안방직 옆으로 도로가 나면은 기숙사를 가려면 이리 가야 돼. 여기가 미군 부대 큰 거 있고. 회사 앞이 바로 한국 부대가 또 하나가 있었어.

곽은비: 그 부대 이름 혹시 기억..

노옥희: 나 몰라 이름

곽은비: 그러면 근무하실 때 일본 공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건 없으세요?

노옥희: 들은 건 없어.

김노천: 늦게 흥한방직이 늦게 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45년도에 일본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이제 군대로 들어와서

노옥희: 내가 영등포에서 올 때, 그때 한창 이제 사람 모집할 때야. 여기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곽은비: 이번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밀렸지만, 국민 여기 바로 건너편에 국민주택 있는데 원래 일본인 집 많았었다고. 그게 흥안방직 간부들 사택이었다고

노옥희: 사택 그 간부들 사택이야.



곽은비: 혹시 간부사택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노옥희: 가본 적 있었지. 왜냐면 노무과장님이 나 결혼 때 주례를 서주셨거든. 근데 가봤는데 집은 깨끗하더구먼. 괜찮게 지어서

김노천: 거기는 뭐 몇 층짜리? 2층? 1층?

노옥희: 1층 단층

김노천: 여기도 단층이고, 방이 몇 개였어요?

노옥희: 방이.. 온돌방이 있고 또 다다미 방이 있고. 그러더라고. 일본식으로 그렇게 지어놨는데, 방이 셋인가 막 그렇게 돼 있지

김노천: 마루도 있고?

노옥희: 어 마루가 이제 다다미니까 다다미.

김노천: 정원도 있고?

노옥희: 정원은 그냥, 앞에 조그맣게 있고. 그냥 집 사택. 집으로 이렇게 한 채씩 이제 준 거야. 직원들을.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서 살았지.

김노천: 옛날 일본 일본 애들. 장교들이 살았던 집인데

곽은비: 그러면 혹시 노무 과장님 성함은 기억나세요?

노옥희: 아주 잊어버렸어. 저 사진은 저기 있는데 결혼 사진에. 거기 뒤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

## 7. 앨범 사진 이야기 (00:47:59~00:56:20)

곽은비: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 사진은 어디예요? 저건 어디예요? 저 결혼식 하신





사진은 어디예요? 장소가

노옥희: 저 앨범에 있지. 그 뒤에 봐봐

김노천: 사진 보면 알 것 같아.

노옥희: 가만있어봐. 너희 아버지 꼼꼼해서 그 썼을라나

김노천: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써놨더라고. 기록을 다 해놨는데

노옥희: 그 당시에는 한복들 입고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서울 사는 아인데 개가 결혼식에 드레스를 맞춰어. 그래 갖고 그 드레스를 빌려주더라고. 결혼식에

곽은비: 요거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

노옥희: 인천 저기 어디냐? 거기가

곽은비: 동인천 쪽이에요?

노옥희: 안 썼어?

김노천: 응 안 써놨어 써놓은 가운데 써 놓으시는데 이걸 안 써놨네.

노옥희: 네 아버지 꼼꼼해서 그런 거 잘 쓰는데 안 썼냐? 거기

곽은비: 어머 선생님 너무 예쁘시다. 너무 예쁘신데요. 진짜

김노천: 어머니가 경기 미스대회 출신이세요. 그 당시에 인천이 없었고 경기 경기도 대표로

곽은비: 너무 고우신데?

노옥희: 경기도 저기 저 뭐야. 인천 그 무슨 여고냐. 거기서 미스 경기 해더랬잖아.



곽은비: 어머 어머

노옥희: 그래서 대표로

곽은비: 옆집 아주머니가 중매를 설만 하시네요. 예쁘네 이렇게 예쁘신데. 이 결혼식은 그럼 동인천 쪽에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김노천: 여기라면 저기 어디예요?

노옥희: 중앙 중앙 예식장. 그전에 옛날 중앙 예식장 있었어

김노천: 어디 옛날에 송의로타리 있죠

노옥희: 송의로타리가 아니고, 저기 저 인천 경찰서. 아 신포동, 신포동 마루터기의 동인천 넘어가려면 거기에 이 원자락으로 중앙예식장이라고 큰 거 있었어.

김노천: 아치. 아치 있는데. 옛날에 아치 해놨던 데 말하는 거지

노옥희: 거기가 큰 거 있었어요. 내 거기서 예식도 공짜로 했어. 돈 없어 갖고 그전엔 그렇게 가난했어

곽은비: 그렇죠

김노천: 아니 근데 돈 없다고 공짜로 해주나 누가?

노옥희: 예식장 그 주인이 아버지 친구고. 또 저기 엄마 7촌 언니가 예식장에 그 저기 신부 화장하고 그 미용하는 데가 언니가 거기서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했어.

김노천: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532 부대 다니셨거든.

곽은비: 그래서



김노천: 저기 정보 부대잖아

곽은비: 안 그래도 532 부대가 조금 제가 궁금했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기사도 몇 개 뜨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적으신 거. 그래서 거기에 532 부대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532 부대가 군사 정보대대였는지 아니면 병참 유류 중대였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김노천: 첩보대라고 그러더라고.

곽은비: 아버지가 첩보대

노옥희: 미군 부대가 방직회사 회사 뒤에가 하나가 있었고. 그건 조그마해. 또 이 맞은 쪽에 길 옆으로 그게 크고. 그 532부대가 그게 커. 그랬는데 어느 때 보니까 없어졌어. 부대들이 다

김노천: 그게 68년도에 없어졌다고 엄마가 그랬어. 날짜를 해보니까 58년도야. 그게 532부대 여기 없어지면서 부평 미군기지 에스컴으로 둘이 합쳐졌지. 그때.

노옥희: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배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 이 식당 책임자로 이제 저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신 거야.

김노천: 에스컴에 에스컴 식당 주방장으로.

노옥희: 그래가지고선 거기 주방장 주방장으로. 그래 거기 계셨으니까 이제 부평에서 이제 데려간 거지. 그래갖고 부평에서 또 배를 또 다시 탄 거야. 미국 배로 그래갖고 저기 저

김노천: 주방 하던 사람이 같이 또 배를 또 타고 나가고

노옥희: 저기 저.. 어디야 어디냐. 월미도에서 타고 가면은 그 백령도 백령도. 백령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이제 타고 타고

김노천: 선장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 부선장을 하셨다. 에스컴에서



노옥희: 항해사는 이제 아버지이고. 선장은 미국 사람이고. 그래갖고 거기를 다 그 배를 타고 갔더랬어.

김노천: 여기 어머니 말씀이 532 부대 아버님이 주방장으로 들어가서 주방장으로 알고 계시는 구나. 주방장으로 하고 계신 거. 그래서 이제 부대가 에스컴으로 갔잖아요.

에스컴인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셨나봐. 1년 만에 선장으로 가서 부선장으로 해갖고 나간 거야.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근데 아버님 사진을 보면은 주방장 사진이 아니야.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차고 계셔.

곽은비: 아, 그러면 좀 전에 길 건너에 532부대가 크게 있었는데 68년에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국민주택 지금 이번에 재개발로 밀린 주택들 들어온 거

노옥희: 그렇죠 그

김노천: 거기가 여기 여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랑 같이 반 나눠줬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노옥희: 그 안에 이제 그 방직 회사가 없어지면서, 그건 뭐냐..그 선전 우산 선전 나오는 저기 옷 있잖아

곽은비: 동일레나운

노옥희: 응 그래 그래. 그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김노천: 부대 자리에?

노옥희: 어 부대자리.... 아니 방직회사 자리에. 아니 잠깐 있어. 부대자리의 맞은편 쪽이다.

김노천: 그게 부대 자리랑 방직공장 자리 두 개를 다 텃을 거야. 원래 그게 전체가 부대 자리였어.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방직공장들 반을 절반으로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방직공장. 전체 방직 공장이 된 거지.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전체가 다 이게 공장이었는데



노옥희: 그리로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렸어. 그 뒤는 모르지 뭐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께서 흥한방적 다니실 때나, 안 다니실 때도 어쨌든 계속 학익동 사셨었으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학익동에서 그때 당시에 자주 갔던 단골 가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혹시

노옥희: 근데 그게 없어졌어. 가게가 왜 없어졌는 줄 알아? 일본 사택 애가. 내가 일본 사택을 하나를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사택 애가 가게가 몇 개가 있었어. 근데 그 일본 사택이 없어지면서 가게도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가 다 없어졌지.

곽은비: 일본 사택 신청해서 들어가셨다는 게 구치소 있는 쪽이에요? 일본 사택 신청해서 들어가셨다는 게 어느 쪽

노옥희: 제일 하치 사택. 그러니까 제일 이제

김노천: 용현동?

노옥희: 아니 학익동.

김노천: 학익동에 신청한 적이 있었어? 엄마가?

노옥희: 그럼 엄마 처녀 때 거기서 살았대.

곽은비: 기숙사 다음을 거기서 사신 거야, 어딘지 알 것 같아 기숙사 다음에

김노천: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친구 집 있는데 거기서 또 살다가, 아버지 만난 거지?

노옥희: 그래

김노천: 그 앞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거기 살다가 그쪽으로 이쪽으로 왔구나. 앞쪽으로

곽은비: 처녀 때가 친구..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아 그러고선



노옥희: 그래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헛갈려.

곽은비: 아 네네네 괜찮아 괜찮아요.

김노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액자 떨어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

김노천: 빠져버렸네. 걸어 나온 김에

노옥희: 깨졌냐?

김노천: 저기 고리가 떨어져 버렸어. 왜? 하세요 네.

## 8. 일본 사택에서의 거주 경험과 마지막 소감 (00:56:21~01:08:59)

곽은비: 일본 사택 가장 낮은 사택을 좀 전에 ‘하치 사택’? 뭐라 하셨어요

노옥희: 하치 사택

곽은비: 하치 사택. 그게 이렇게 약간 줄로 붙어있었죠?

노옥희: 그거는 이제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리고 화단은 이제 양자락에 조그만 거 있고.  
그러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 이 화단. 연탄 쌓는 광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그래 이제 혼자  
살기 좋은 집이지

곽은비: 혹시 대략 진짜 그냥 못 그리셔도 되니까. 대략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땠었는지만

노옥희: 그냥 일본사택이야. 이건 화단 화단. 여기는 이제 밭이 있었어. 밭이 있어 가지고  
밭을 내가 저기를 심었어. 채소를 심어 먹었어요. 밭은 이제 내가 해서 뭐 심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거 줄줄이 이제 사택.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거 그냥 쪽

곽은비: 방 하나 이렇게 있고 부엌 있고



노옥희: 그러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쪽 사택이니까

곽은비: 이게 줄사택이고, 부엌 방 부엌 이렇게 된 사택이 여러 개 있고, 아 쪽-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있었어요? 화장실 이거 살 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쓰셨을 것 같은데

노옥희: 별도로 따로 있었지

곽은비: 어느 쪽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노옥희: 공동변소 화장실을 썼어

곽은비: 공동 변소가 혹시 이렇게 나가서

노옥희: 나가서 있었는지..

곽은비: 이거는 그러면 이 일본 사택 사실 때는, 돈을 따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면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노옥희: 그냥 신청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또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고 들어와. 이걸.

곽은비: 그러면 이거는 여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방직 공장 다니셨던 분들?

노옥희: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방직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곽은비: 그러면 여기 사시다가 친구분 댁 잠깐 사실 때는 그 친구분은 요 근처에 사셨었어요? 여기 있는 거 근처였어

노옥희: 친구는 저 아래로. 저 아래

곽은비: 아래가 어느 쪽 방향이죠?



노옥희: 인하대 방향으로. 인하대 맞은편. 거기서 살았어.

곽은비: 여기는 인하대

노옥희: 개는 결혼식을 일찍 했어.

곽은비: 그러면 요 일본 집에서는 몇 얼마나 사셨어요? 한 1년 사셨어요?

노옥희: 1년.. 한 1년 더 살았을걸?

곽은비: 그럼 친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사셨어요?

노옥희: 친구 집에서는 얼마 안 살았지

곽은비: 1년도 안 되게? 응. 그렇게 사셨고. 처음에 학익동 오셨을 때 기억 떠올려보시면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막 개천도 흐르고

노옥희: 방향을 못 잡아

곽은비: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사시면서, 주변 풍경이 바뀌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노옥희: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여기가 지금 이 동아풍림 이게 들어앉은 데가.  
부대자리가 비슷하게 들어가고. 요 맞은편 자리가 길 옆에 약국, 도로 바로 옆에가 거기가 내  
친구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 그 자리 같아. 사거리에서 했는데. 그래 갖고 이 도로. 저기  
가운데로 이리로 쪽 가면은 그 무슨 무슨 동네인지, 그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어.

곽은비: 양토 마을?

노옥희: 아니야 아니야

곽은비: 햇골?





노옥희: 새골이라고 그러나 새 맞아 새미는 저 건너고 셋골이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야.  
여기서 하여간 한참 들어가면은 산 밑에가 동네가 있었어.

곽은비: 햇골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 그쪽을 학익동

노옥희: 그래 그래 셋골. 그 생각도 나고 그러네.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더. 여기 옆에다가, 공장이 공장 내부에 건물들이 어디 어디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옥희: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들어가서부터 경비실. 그거 그냥 대충 그려줘도 돼요.  
들어가면서부터 경비실. 경비실 여기 들어가서 쪽 가가지고서는.

곽은비: 잠시만요. 이제 경비실이고

노옥희:식당, 노조요 사무실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었어

곽은비: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는데요?

노옥희: 여기가 들어가는 곳. 이리로 이리로 쪽

곽은비: 위로 쪽 들어가면 여기에 노조

노옥희: 식당 노조 사무실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고

곽은비: 식당이랑 노조 사무실

노옥희: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일러실

곽은비: 여기에 보일러실은 좀 작았겠네.

노옥희: 어 보일러실



곽은비: 보일러실

노옥희: 보일러실에서 또 이리로 쪽 가면은 거기가 이제 이 직장이지

곽은비: 일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크게 공장

노옥희: 공장이 이 자리는 방직 공장이고, 저기 실 뽑는 데고, 직접 짜는 데고. 이 쪽이가 이제 이 솜 가지고 하는

곽은비: 여기가 솜. 솜하는 공장. 여기가 방적이랑 직조하는 공장이고 이렇게만

노옥희: 저기가 짜는 데가 조그마해. 크질 않아 기계는 몇 대 안 들어가 봤지만 기계는 몇 대 안돼.

곽은비: 직조는 좀 작고, 방적이 좀 크고

노옥희: 그러고 그냥 그 저기야 책이.. 폭탄 떨어져 고서는

곽은비: 맞아 그렇다면서요.

노옥희: 그냥 무너졌어

곽은비: 그 무너진 건 어느 쪽이에요?

노옥희: 다 무너졌어. 있잖아. 이거 화장실이고 뒤편에 다 무너졌어. 그 한쪽에서 이제 그걸 기계를 놓고 짜는 거야. 일을 했지

곽은비: 그러면 아까 그 뭐지? 천 짜는 곳은 무명천 짜는 곳은 따로 나와 있다고 한 게 이렇게 따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바로 옆 건물로 있었던 거예요?

노옥희: 거기서 좀 한참 가야지. 저기 솜 가지고 일하는 거기에서 한참 가야 돼. 이리로 한참 가면은 거기에 이제 방직 기계 놓고서 짜는 데가 있어.



곽은비: 이게 조금 더 가고 여기는 다 여기는 무너졌고

노옥희: 무너진 대로

곽은비: 그러면 이 흥한방적 자리가 지금 동아풍림 자리인 거고, 옆에 있던 조그마한 부대가  
지금 엑슬루타워 들어와 있는 동일레나운이 있던 곳

노옥희: 거기인지, 어딘지 하여간 그 언저리 어디였던 것 같아

곽은비: 그렇게 같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 셔틀 버스 타고 다녔다 했잖아요. 버스는 어디서  
타시는 거예요?

노옥희: 회사 안에서

곽은비: 아, 이 안에서 그냥 버스가 여기서 출발한 거야. 안에 타

노옥희: 안이 넓으니까

곽은비: 경비실 앞에서 출발하고 이게 아니고 아예 회사 안에

노옥희: 회사 안에서 이제 타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는 거지.

곽은비: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노조 사무실이 있었다 했잖아요. 안에서 쟁이 운동 같은 거  
뭐 없었어?

노옥희: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 노조 사무실도 저기 그냥 이런 사무실하고 같이들  
이용했는데 뭐

곽은비: 그냥 사무실처럼. 저는 이 정도 여쭙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신동재: 그 정전이 궁금했는데 발전기가 있어서



곽은비: 지금 약간 약간 실망했어. 선생님은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거는 없으셨어요? 선생님이 일하시면서

노옥희: 힘든 거는 뭐, 없어요. 힘들게 하질 않으니깐 왜냐하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깐 이제 기계 만한 거 내가 고칠 만한 거 있으면 고장 나면 내가 고치고 그러니까. 뭐 힘들 만한 건 뭐 없었어. 근데 몸이 아파서 이제 그만둔 거지 회사를

곽은비: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독립병원이 지정 병원이었다 하셨잖아요. 독립병원이 어디 있을 때요 그것도 신포동?

노옥희: 저기 저 신포동이 아니고 어디냐 거기가

김노천: 거기 있지, 여기 지금의 어디야 저기 신포. 신포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독립병원이야 지금 무슨 다른 걸로 바뀌었던데 병원 비슷한 걸로

노옥희: 그 병원이 저기 회사 병원이야

곽은비: 네, 이 정도 저는 인터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옥희: 얼굴 찍혀서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

신동재: 저희만 보겠습니다. 저희만 보겠습니다.

김노천: 아니야 안 지켜도 돼요. 나

곽은비: 아까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할 때 참고하려고 같이 찍은 거여서. 그리고 저희가 여기 구슬 동의서랑 이런 거를 봤는데 한문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함 선생님 한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노천: 괜찮으시고요. 한 번만 다시 좀 적어주시고 날짜는 좀 비워두고

곽은비: 선생님 여기에



김노천: 아니 저기 받아가지고

곽은비: 한문 이름이.. 이거 선생님 저희가 정보 적는 건데 선생님 성함이랑 한문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한문

김노천: 구슬 옥.

곽은비: 아, 구슬 옥자. 그러면 제가 적을게요. 그냥 한문을 알려주시면

김노천: 여기 여기 뭐지 구슬 옥.

곽은비: 구슬 옥. 희는 기쁠 희 일까요?

김노천: 아냐아냐, 여기 잠깐만